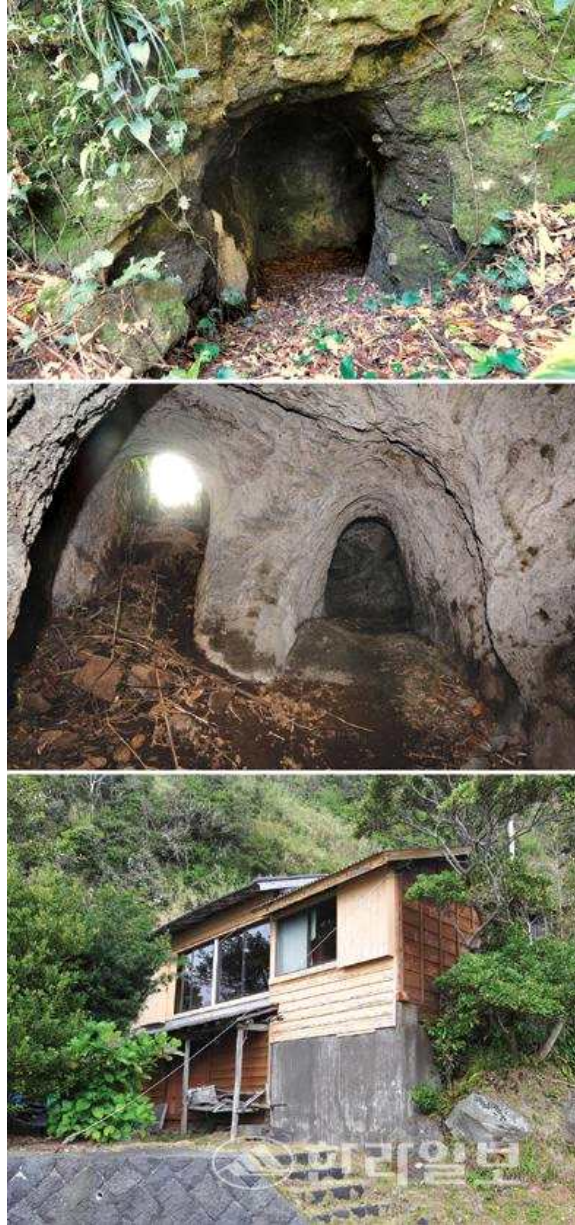


['고난의 역사현장'일제전적지를 가다](127)

군사시설 구축에 韓人 동원... 식민지 아픔 간직

-제주·일본 제3차 해외비교 ② 하치조지마 칸도야마지하요새

입력 : 2009. 05.14. 00:00:00



▲산 중턱에 위치한 칸도야마 지하요새 입구 (사진 맨위). 총 연장 1km에 이르고 나선형구조로 이어진 칸도야마 지하요새 내부 통로(가운데)와 일제 강점기 당시 제주도 해녀가 정착해서 살던 집으로 지금은 비어있다(사진 맨 아래). /사진=이승철기자

내부는 나선형 구조로서 1km 가량 이어져 기관총 진지 등 구축... 제주도 갯도와 흡사 동원된 한인 300명 중 100명 공사기간 사망

도쿄에서 300여km 떨어진 작은 섬 하치조지마(八丈島)는 일제 식민지의 아픔이 진하게 배어있다.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본토사수를 위해 무차별적으로 동원돼서 온갖 고통을 겪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과 슬픔을 이곳 하치조지마에서도 느낄 수 있다.

하치조지마는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 본토를 등지고 있는 전략적 입지로 인해 다양한 군사시설이 들어섰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섬 내부의 지하진지와 지하요새를 합치면 총 길이는 63km에 이른다고도 이야기 될 정도다. 그만큼 섬 전체가 거대한 전쟁기지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군사시설의 종류도 다양하다. 대규모 지하 요새 뿐 아니라 대공포진지, 비행장과 일본 해군 특공부대인 진양(震洋)·카이텐(回天)기지가 구축됐다. 해안선 총연장 길이가 59km이고, 면적은 69km²에 1만명이 채 안되는 인구가 살던 작은 섬은 불과 1~2년 사이에 전쟁의 섬으로 변한다. 이 섬의 군사시설 구축 공사에는 많은 한인들이 동원돼 공사기간에 사망하기도 했다.

1944년 7월 사이판에 이어 1945년 2월에 이오지마가 함락되자, 다음은 비행장이 있는 하치조지마가 미군 등 연합군의 표적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있었다.

그러나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미군의 상륙은 이뤄지지 않았고 전투는 벌어지지 않았다. 그 대신 당시 건설된 군사시설만이 우리 한국인들의 아픔과 전쟁의 비극을 말해주고 있다.

하치조지마 군사시설 가운데 철벽산사령부호와 함께 눈길을 끄는 것은 칸도야마(神止山)지하요새다. 칸도야마지하요새는 제주도 화산지형에서 흔히 보이는 응회암층을 뚫고 구축됐다. 마치 송악산 해안이나 일출봉 해안의 지질을 연상시킨다. 이곳은 독립훈성제43연대 예하의 대대본부로 구축됐다고 한다.

칸도야마지하요새는 산 허리에서부터 8, 9부 능선 지점까지 구불구불 나선형 구조로 만들어졌다. 제일 하단부와 상부에 위치한 출입구 사이의 표고 차이는 80여m에 이른다. 평탄구간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만큼 통로 내부는 가파르다. 길이는 945m로 거의 1km에 가깝다. 칸도야마지하요새는 폭은 70, 80cm 정도이며, 높이는 150cm 안팎이다.

숨이 멎을 듯한 좁은 통로를 따라가다보면 내부 통로는 미로처럼 복잡하게 연결됐다. 내부 급경사 구간에는 바닥을 다져 계단을 만들었고, 크고 작은 방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내부에서는 맞은 편 능선의 지하진지 입구를 볼 수 있도록 관측구가 나 있다. 또한 기관총진지와 콘크리트 포대 및 수조 등을 만들어 놓기도 했다. 벽면에는 곡괭이자국 등이 선명하게 남아있고, 갯목흙 흔적도 볼 수 있다.

칸도야마지하요새에 대해 취재팀과 동행한 주비시 준부 교수(十菱駿武, 山梨學院大學)는 "좁다
랴게 이어지고, 하단부와 정상부가 표고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사라봉 동굴진지를 연상시킨다"
고 말했다. 그렇지만 사라봉 동굴진지 보다는 통로내부의 구조 등 면에서 미로형으로 구축된
가마오름이나 송악산 외륜 동굴진지를 연상시킨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많은 한국인들이 동원돼서 만들어진 군사비행장은 지금은 이 섬과 일본 본토를 연결하는 유일
한 공항, 즉 하치조공항이 되었다.

/특별취재팀=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하치조지마향토연구회 하야시 카오루씨

"군사시설 구축 동원 韓人 명부 존재..제주해녀들 많이 진출 감태 등 채취"



하치조지마의 대규모 지하요새 구축에도 어김없이 한국인
이 동원됐다. 방위도로 뿐 아니라 비행장 건설에도 동원됐
다. 비행장 건설에는 약 300명 정도가 동원돼 이 가운데
100명 정도가 공사 기간에 사망했다고 한다.

취재팀을 안내한 하치조지마향토연구회의 하야시 카오루씨
(林薰·60·사진)는 "호라자와진양대호 근처에 있는 절 주지스
님이 생존해 있을 때 조선사람(한인)들의 장례를 화장터 2
곳으로 나눠 치러줬다는 말을 들었다"며 "비행장 만들때
많은 한인들이 동원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 절의 주지스님이 죽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사망자
이름이 적힌 명부가 나왔는데 명부에 적힌 55명 가운데 일
본인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한 이름이 10명 있고, 나머지는
창씨개명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 그 명부는 지금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야시씨는 또 방위도로는 민간기업이 독자적으로 건설했다며 그 건설공사에도 많은 한인들이
동원됐다고 설명했다. 하치조지마에는 군사시설 공사에 동원됐던 우리나라 사람들 뿐 아니라
제주 해녀들도 건너갔다.

하야시씨는 "제주도에서 해녀들이 와서 눌러살았는데 자신도 2가구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며 "가족단위로 온 경우가 많았고, 강제로 이 섬에까지 건너온 것은 아닌 것 같았다"
고 말했다.

하야시씨를 따라 취재팀은 제주도 해녀가 처음 이 섬에 와서 살던 집을 찾아갔으나, 이미 사망
하고 난 뒤였다. 현재 해녀가 살던 집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으로 남아있고 딸은 시집가서

하치조지마 내에 살고 있다고 한다. 이웃 주민의 말에 따르면 그 집에 살던 해녀는 '김상'이었다가 나중에는 '가네다 시게루'로 불렸다. 그 주민은 또 근처에 또 다른 해녀집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치조지마의 제주 해녀들은 화약의 원료로 사용한 감태와 덩구샤(우뭇가사리) 등을 채취했다. 하치조지마 뿐 아니라 인근 섬에 감태가 많아서 제주도 해녀를 불러서 채취했고 화약의 원료로 썼기 때문에 (이를 채취하기 위해) 해녀들이 많이 왔다는 것이 하야시씨의 설명이다.

/이윤형기자 yhlee@hallailbo.co.kr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